



# “아프리카 문화·전통의 영향을 이교·미신이라 치부? 지양해야”

한국선교연구원,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 아프리카 교육 사역자 문대원 선교사 초청 강연



기독교의 중심이 점차 남반구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했던 20세기 중반 이후로, 세계 선교 학계에서는 서양 종교가 아닌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다.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라는 새로운 학문의 분야는 서양 중심의 제도권적인 기독교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문대원 선교사(아프리카 부룬디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교회사와 세계 기독교), 흥은혜 기자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독립 교회와 조상 숭배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 기독교의 보편화(universalization)와 개별화(particularization) 과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문대원 선교사(아프리카 부룬디 Intern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교회사와 세계 기독교)를 초청, “아프리카 독립교회와 조상 숭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그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Dana Robert 교수의 지도하에 세계 기독교와 아프리카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다. 문대원 선교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의 저명한 인류학자 에드워드 타일러와 제임스 프레저 등은 ‘조상 숭배’를 원시 종교의 확장적인 표징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들은 종교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계 종교들을 분석하며 애니미즘(animism)을 가장 단순화 된 저등 종교(혹은 원시 종교)로 인식했는데, 애니미즘 종교관의 핵심 중 하나로 조상 숭배를 꼽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시대의 종말과 세계화의 도

래와 함께, 조상 숭배와 같은 아프리카 전통 관습에 대한 이전의 오래된 인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문 선교사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조상이 가진 사회학적, 현상학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현격한 부상은, 조상과 관련된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 종교 관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많은 기독교 인들이 조상과 연관된 믿음, 그리고 행동을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의 중대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조상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조상과 연관된 종교 의식을 어떻게 그들의 기독교 신앙 안에 포함하게 되었는지를 눈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선교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전통 세계관에서 죽은 자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생존하는 가족들의 일상 생활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문 선교사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인들은 망자(the dead)들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며 “이것이 바로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전통 문화와 종교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말하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독립교회의 가장 큰 공헌은 기독교를 더 이상 서양의 종교 아닌, 그들 자신의 신앙으로 변화시킨 일”이라며 “조상과 연관된 의식을 정화하고, 변화시키고, 보존하는 사명 역시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했다.

그리고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독립교회가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했다”고 했다.

더불어 “20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세계 기독교’에 대한 담론은 보편적 진리로서 신중한 신학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와 서양의 전통 모두에 진실



한국선교연구원의 2017 상반기 한국 선교학 포럼이 열리고 있는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흥은혜 기자

를 보존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프리카 독립교회를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역사적으로 서구 신학자들이 기독론을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한 반면, 아프리카 신학자들은 기독론을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실증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한다. 때문에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질병과 기근, 가난과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며,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조상이 가졌던 중재자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선교사는 “아프리카 사회에서 조상이 내포하는 이미지가 가감 없이 그리스도로 전이 되는 심각한 기독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단순하게 이교적으로 치부하지 않는 견식 있는 신학적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청 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행사는 12일 오후 2시, 남서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흥은혜 기자

##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로 확정

박은성 목사(41)가 나성영락교회의 새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는 8일(현지시간) 제직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박은성 목사에 대한 청빙을 결의했다. 앞서 이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는 이미 박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해외한인장로회 교단법상 제직회 결의 과반 이상이면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

LA기독일보



박은성 목사가 신년 첫 주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판국장 장세규 교계판국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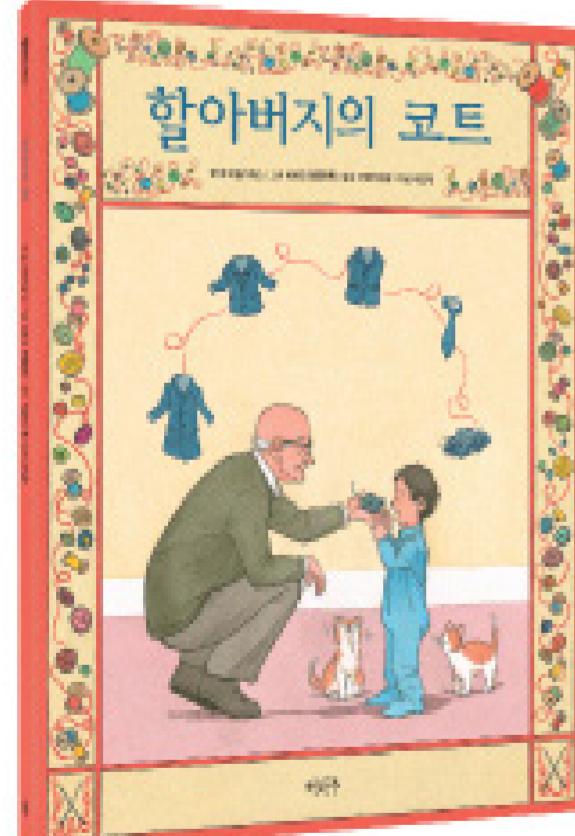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http://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명사와 함께 있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미미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스쿨 라이브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낡고 해져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얗고, 오래되고, 물물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해요.  
진정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마티스트 이호재



글정아일스워스 | 그림 하비라 메풀만족 | 통일 이효재 | 38쪽 | 9,800원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39-7851

## “민족주의 물결, 아시아 박해 순위 상승시켜”

###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17년 박해의 동향에 대해

민족주의(Nationalism)의 물결은 2016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서구에서는 불평등, 이주, 세계화 및 성장 문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해서 반체제적인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이 민족주의는 반소수민족(anti-minorities) 형태를 취했으며, 종교적 민족주의와 정부의 불안정에 의해 더욱 극단적으로 성장했다.

파리스탄은 WWL 2017년 4위로 상승하여 나이지리아 북부를 훨씬 넘어서는 폭력 수준을 보였다. 인도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폭파하면서 박해순위 15위에 진입해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전쟁으로 쫓아진 예멘을 제외하고 WWL 2017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국가는 아시아에서 나왔다.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내 소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악화되었고, 불교 민족주의는 스리랑카를 50위로 끌어 올렸다. 중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점은 외국인 혐오증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을 적대적인 외국세력으로 간주하고, 경계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다.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한 외국 기독교인은 당국으로부터 1년에 한 번 해당 공안의 조사가 있을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현재 감시의 수위는 높아졌고 일주일에 두 번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이슬람 세력의 억압은 상위 50개 박해국가의 지배적인 박해요인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대부분 이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이다. 이슬람의 폭력은 상위 20개 국가 중, 14개 국가와 50개 국가 중, 35개 국가의 주된 박해 요인이다. 북한과 에리트레아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일한 예외이다.

1. 아시아의 종교 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종교 민족주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2014년 5월에 인도 모디(Modi)의 압도적인 선거 승리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인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시골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 했다. 600,000명 이상의 극단주의자들은 가정을 급진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훈련되었다. 현재 멜리에 있는 많은 목사가 매질을 당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한 달 평균 40 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8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살해되었다. 이러한 폭력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의 모든 층면에서 자유가 줄어들고 힌두교 급진주

의자들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다. 인도 교회는 6천 4백만 명으로 엄청난 규모이며, 3천 9백만 명이 직접적인 박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불교 민족주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탄 정부는 기독교인을 전해 부탄인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들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전자 신분증 시스템은 기독교 소수 민족의 일부를 무시하고 수많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2. 아시아 정부의 불안전과 민족주의 카드

민족주의는 항상 불안한 정부가 사용하는 카드이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 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지도자는 부패 혐의로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종교를 가지더라도 반드시 전통적인 유교에 속할 것을 강요함으로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유교는 실제로 종교가 아니라 일련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스리랑카인은 모두 불교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레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오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망적이고 편집증적인 독재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부족의 신자들은 국가와 부족으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감당해야만 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

3.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이슬람 급진주의 드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알샤밥(AI-Shabaab)과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이슬람 무장 반란자들의 악의적인 드세로 인해 수년간 헤드 라인을 장식해 왔다. 2016년 11월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보코하람으로 인해 8백만 명의 아프리카 인들이 긴급 상황과 기아로 고통 당했다. 올해 알샤밥 무장 세력에 의해 적어도 12명의 기독교인이 소말리아에서 살해됐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슬람세력의 투쟁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급진주의자들은 무슬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폭력의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은 특히 사우디의 후한 자금 지원으로 소말리아, 케냐,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Urkinga Faso)에 새로운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회교 사원을 건설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며, 이 나라들 대부분에서 박해를 조장하는 것은 폭력뿐 아니라 개인, 가족, 지역 사회, 교회 및 국가 생활의 5개 영역에서의 심한 압박이다.

기독교가 주류인 케나는 아직도 20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나이로비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은 사설 보안 회사

를 고용하여 교회 출입문에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하우사풀라니 목동(Hausa-Fulani herdsman)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냈다. 지역 기독교인 말한 것처럼 소말리아(2위)에서는 모든 것이 기독교인에 반대하며, 수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말리는 실제로 WWL 2017에서 가장 높이 순위를 이동했다(32위에서 12위로).

4. 중동은 보다 급진적이고 독재적인 체제들 사이에서 악극화되었다.

중동에서 올해 4명의 선교사 자매가 살해되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벌금을 내고 생계를 잃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열망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른바 MBBs, 무슬림배경의 신자가 되었다. 또한 다른 무슬림들은 더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종파 분열은 많은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급진적인 세력과는 달리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와 같은 독재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부족의 신자들은 국가와 부족으로부터 이중적인 박해를 감당해야만 한다. 지난해 베트남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살해가 3건이나 발생했다.

5. 기독교인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살해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 순교가 많이 발생한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해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대체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부족 및 사회의 적대감에 매일 직면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배경의신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두려움이 없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보고자에 의하면 이들은 기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며 활기찬 것이며, 그들은 세상을 축복 할 것입니다.

살해 된 기독교인에 관한 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이는 2014년에 이슬람 국가(IS)가 칼리프로 세운 영토를 이미 떠났기 때 문이다.

#### [박해 중 좋은 소식]

박해가 “좋은 소식”을 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나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박해가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 1. 중국의 가정 교회가 더 토착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9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서구 교회와 비슷한 예배 구조 속에 있다. 2012년 이래로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불규칙적인 제재가 증가되어왔다. 이에 대해, 상하이에 있는 한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2년 전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에 놀란 정부의 규제로 교회를 닫아야 만했다. 회중은 해산 명령에 맞서 얼마 동안 공원에서 만났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는 서구 교회를 맹목적으로 복사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박해를 가져와 우리가 거대한 교회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그룹으로 흩어져 애썼기 때문에 진정한 토착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무슬림 배경 인도네시아의 신자들은 새로운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세상에는 무슬림배경의신자(MBBs) 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부족 및 사회의 적대감에 매일 직면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종류의 무슬림배경의신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두려움이 없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보고자에 의하면 이들은 기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의 새로운 물결을 형성 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며 활기찬 것이며, 그들은 세상을 축복 할 것입니다.

#### 3.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애굽”이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다.

중동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고통으로 인해 이 지역의 국경을 넘었을지도 모르지만, 지난 잠시 동안 그 이동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걸프만에 있는 이주자와 외국인 크리스천을 포함하여 중동과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독교 박해 순위(Open Doors World Watch List, WWL) 지도  
오픈도어 선교회 제공

터키의 기독교인 수를 현재 1,650 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 4. 일부 이민자들은 서구 교회에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있다.

유럽에 입국하는 이주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나라의 교회들도 그들이 기증자가 아니라 수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현지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시간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는 교회 전제로 연결되어 있다.

일부 무슬림 이민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망명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신자들은 젊은 신자들의 새로운 유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최근 케임브리지 교회의 한 목사에 따르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소생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질문과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호기심이 기존 신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성장했다. 중부 독일의 한 목사는 “그들은 진정한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기시켜 줍니다.”라고 언급했다.

#### [폭력에 관한 정보]

WWL 2017보고 기간에 1,207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관련 이유로 사망 한 것입니다. 그것은 7,106(WWL 2016보고 기간)에서 내려갔습니다. WWL 2017 국가에서 사망 한 기독교인의 수는 948 명이었고, 2017년 WWL 외 국가의 경우 225 명이었습니다. 이는 78 %에서 19 %의 비율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살해 된 34 명의 기독교인이 계시되어 (3 %)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사진=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www.epostbank.go.kr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고객센터 1588-1900

# [평화칼럼] 통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비터 프랑클이 유대인 포로수용소에 살면서 함께 수의를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동족들의 모습을 아주 절실히 그려냈다. 그 자신은 가스실 사워를 피해 살아나올 수 있었던 행운이다. 매일 아침 죄수복을 입은 채 운동장에 나오면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이 사방으로 에워싸 있다. 철조망을 보고 한숨쉬는 사람은 하루씩 죽어갔고, 철조망 건너 틀국화가 조급씩 피어나는 것을 보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하루씩 하

루씩 살아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 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뛴 베꼈화를 보라.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누구든지 창조주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창조주는 피조물과 함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신다. 창조의 어마어마한 축제가 항상 곳곳에서 벌어진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런데 예수께서 한 더 나아가 편장을 하시며 확인 하신다. 새와 베꼈화와도 기쁨의 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너도 좋아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과는 얼마나 좋은 친지를 마련하시겠느냐고.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万物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완성하신 창조를 보고서 기뻐 노래하셨다. “참 좋다!”

우리는 38선 이라 이름하는 철조망을 보면서 분노하며 살았다. 절망하며 살았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쌍방은 저주하고 적대시 하고 살아왔다. 결과는 쌍방이

무거운 짐에 허리가 휘고 불신과 저주로 마음마저 멀어지고 얼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38선 북쪽에도 남쪽에도 새가 나르고 틀국화가 만발하고 온갖 짐승들이 뛰어노는 비무장 지대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 이전에서부터라도 이 동산은 세계 마지막으로 남은 오염되지 않은 “조류공원”, “동물원”, “식물원”으로 명명하자는 논쟁없는 마음의 합의를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이를 합쳐서 편의상 “세계 평화공원”, “한반도 평화동산”이라 부르면 된다. 아무진 엄청난 미래의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안다. 38선 철조망은 하나님께 수평으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거두어 치우침 거라는 사실을. 사람이 만든 분노와 적대의 철조망은 하나님께 용도폐기로 선언하시고 철폐하시면서, 그 대신에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적대화된 두 나누어진 백성의 화해와 통

일 영원을 함께 수놓는 평화통일 금수강 산을 하락하길 것이라는 진실을.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통일의 주인은 남과 북의 5천만 백성이 임을 확인하자. 주권재민의 국가가 참된 국가의 모습임을 누구나 알고 고백한다. 이제는 백성이 말하고 주장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지, 정부를 위해 국민이 있지 않다. 체제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야지, 국민이 체제의 부속물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그동안 남한 땅은 짧은 시일 내에 상당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정치사회적 자유도 상당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부심이 충전했다. 그런데 이제 집결된 촛불이 소리친다. 진정한 안보는 국민안보여야 한다. 체제안보가 아니다. 타락한 체제는 더더욱 아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공정한 경쟁과 노력의 결과이어야지. 불의한 특

혜를 통한 재화축적이나 유전무죄식의 불공정 사회생활이 아님을 크게 소리친다. 남과 북의 일상생활은 단순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많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백성들은 남한 백성들의 삶으로 준비하자. 통일이 가져올 평화를 주권재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 지혜를 모으고 준비하자. 철조망을 거둬낸 자리에는 통일된 조국의 평화동산을 이루자. 세계만방에 이를 알리고 새로운 평화, 창조, 자유의 유람지로 제공하자. 그리고 남과 북의 백성은 평화와 자유와 정의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마음껏 수놓아보자. 이 미래는 단분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분단의 철조망을 거둬내고 통일과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성육하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다. 이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자. 그리고 전 세계에 연주될 통일과 평화의 찬가를 준비하자. 이일을 위해 그 분은 “앞서가시는 주님”이시다.

글=평통연대 제공

## [김병구 시론] 크리스천 언론인·검사·국회의원들이 회개하고 ‘양심선언’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의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 이북의 김씨 세습 정권이 거짓과 증오와 살인 등 사탄의 속성을 유감 없이 밝힐 줄 알며 언론에 유지되고 있는 사탄의 세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탄의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등의 특별정책의 그늘 아래 언론·검찰·국회 등에 사탄의 하수인들을 심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막자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소위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다.

그 불법사태가 언론의 거짓보도와 선동에 기인했던 것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과 민주노총을 혁파하지 못하고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종북 좌파세력의 성장을 방관한 이명박 정권이 비열함은 오늘의 대통령 탄핵의 온상을 제공하였다. 좌파 척결을 위하여 통진당 해산 전교조 불법화 국정교과서 제정 노조의 법 개정안의 상정 등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과 검찰이 합동으로 소위 최순실 테블렛 PC를 조작하여 거짓에 바탕을 둔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좌파 국회의원들이 배신의 국회의원들을 괴롭게 대통령탄핵을 의결하

는 참으로 사탄의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짓을 범하고 말았다.

만약 사탄의 계획대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탄핵이 용인된 시점으로부터 60일 후에 대선이 실시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가져올 기록인들 포함한 미국 보수국민들의 실의와 사기 저하에 비하여 보수정권이 부패정권임을 인정받은 사기 충천한 좌파와의 대결에서 기적이 없는 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차기 좌파정권의 설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자신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날뛰는 좌파두목이 외치는 소리를 엊잇는가? “보수를 불태우자!”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먼저 김정은을 만나겠다” 북한의 핵 공격으로 방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을 중국에 보내 사드 설치를 무산시킬 것을 약속한 사람, 유엔이 북한인권의 안의 학성여부를 북한의 김정일에게 물어보면 결정해야 한다는 자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실시를 추진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금 1,500만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다. 이것은 1,500만 크리스천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

령 탄핵의 용인을 막을 수 있는 세 개의 길이 있다. 그 첫째는 이번 탄핵 소추가 거짓과 증오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음모의 일환인가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목격, 체험 또는 참여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양심을 고백하는 길이다.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누구나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의의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십자에 달리신 목적임(요 17:19장)을 우리는 새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부여로 전국과 지도를 짹 지어서 설교하심에 유념해야 한다.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면 전국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 거짓된 삶을 살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한 걸 같은 가르침이다.

크리스천 언론인, 크리스천 검사, 크리스천 국회의원 여러분! 이 세상의 부나명에 연연하시다가 불의에 동참하거나 불의에 눈감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여 영원한 별을 받겠는가? 불의에의 동참이나 좌시하였음을 회개하고 양심의 평화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겠는가?

탄핵을 기각시키는 두 번째 길은 1,500

만 크리스천이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애국시민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판관들도 인간이다. 그들의 눈 앞에 떨어지는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성도 중 언론인·검사·국회의원들과 필히 상담하여 그들의 영혼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할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목사님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임무가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번 일은 사탄의 세력인 북한의 간접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을 구출하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천양과 기도가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 김병구 장로는 성가풀 장로교단 장립 장로, 사카고 ‘약속의 교회’ 은퇴장로로서 바른구원선교회를 섬기며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기고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원한 성공을 주는 온전한 복음〉(한솔미디어 펴냄)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침을 여는 기도]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받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저의 생명을 강하고 굳세게 하여

연요한 목사

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시18:6)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시며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대립절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불같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저 높은 곳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고스란히 자신을 맡길 믿음을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품속에서 고이 쉬게 하옵소서. 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흘로 저의 구원이시고 저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의 힘이신 바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에 있는 걱정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기쁨으로 모두를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꾸밈없는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퇴행성관절염은 서울제이에스병원에서



진료시간

평일 : 10:00 ~ 18:00  
토요일 : 09:00 ~ 15:00  
일요일 : 14:00 ~ 18:00  
점심 : 12:30 ~ 13:30

찾아오는 길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33, 3~5층  
(강남구 논현동 90-7번지, 디와이빌딩)  
■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도보3분

일요일  
진료시작



서울제이에스병원 대표원장 송준섭

전화상담 및 예약문의 02.533.3600

[www.sjshospital.com](http://www.sjshospital.com)

[www.sjshospital.com](http://www.sjshospital.com)